

지역시민의식 형성 영향 요인 : 용인시를 중심으로

Impacts of Local Civic Consciousness Formation : Focused on the Yong-in City

전선영

용인대학교 라이프디자인학과

Sun-Young Jeon(unipink@yongin.ac.kr)

요약

본 연구는 지역복지를 극대화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지역주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민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파악하였다. 즉, 지역사회 문제인식의 정도, 개인의 가치 및 태도,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여부 등이 민주시민의식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의 상황과 현실에 맞춘 성숙한 시민의식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지역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비례확률층화표집 하였다. 연구결과, 경제·환경문제인식, 노인문제인식 등 지역사회문제를 높이 인식하고, 사회적성취욕구, 자아인식, 문화적 가치지향 정도가 높고, 사회활동에 참여할수록 긍정적인 시민의식 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시민의식 | 가치 및 태도 | 사회활동참여 | 지역사회문제인식 | 지역사회복지 |

Abstract

This study apprehends the effect of primary causes that form civic consciousness, which mature local residents should have. Moreover, it trie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ature civic consciousness with regard to the situations and conditions of local community, by observing how the extent of local problem recognition, personal viewpoints, and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ffect formation of civic consciousness. The research was conducted to 600 local residents, ages 20 and above, with 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method. The study showed that high recognition of environmental, social, economic and aging issues, fulfillment on social achievement, self-perception, culture orientation, and higher frequency on participating on social activities have positive effects on formation of sound civic consciousness.

■ keyword : | Civic Consciousness | Personal View Point |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 Local Problem Recognition | Community Welfare |

I. 서론

오늘날 한국사회는 가치의 혼란, 집단 이기주의의 팽배, 세대 및 계층 간 상호이해 부족과 입장 차이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토로 하는 새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시민

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와 주체적인 의식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 갈등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세대 간 가치의 대립과 갈등의 해결이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탈법, 불신풍조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덕성, 준법정신, 상호신뢰 등 긍정적인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

* 본 연구는 2010년도 용인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접수번호 : #110817-005

접수일자 : 2011년 8월 17일

심사완료일 : 2011년 09월 23일

교신저자 : 전선영, e-mail : unipink@yongain.ac.kr

한 한 단계 높은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4].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지식수준을 높이거나 관련 기술의 습득, 혹은 제도의 변화나 확충과 같은 노력으로는 근본적으로 치유에 한계가 있으며, 사회구조적 변화를 넘어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을 요하는 문제이다.

새로운 시민의식을 정립함으로써 이를 중요한 자국의 사회적 자본으로 삼아 국가 경쟁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자각을 바탕으로 코건(2000)[19]은 21세기 시민의식으로 국가적 정체성, 권리와 자격에 대한 의식, 책임과 의무감, 사회적 가치의 수용 등을 들고 있으며, 슐러(2002)[26]는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생애능력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개인의 가족관계, 친구관계, 사회적 가치와 함께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최근 선진국들은 세계화에 부응하면서도 자국의 문화와 풍토에 맞는 시민의식 육성에 관심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4].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지역마다 자치지역 실정에 맞는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의식에 대해 조사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9-11][13][14]. 예를 들면, 재활용과 관련한 경주시민 환경의식조사, 수원시민 환경의식조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에 관한 전주시민 의식조사, 중앙기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서초구민 의식조사, 지역공원 조성에 대한 서울시민 의식조사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시민의식 조사가 진행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시민의식을 조사하여 복지계획과 연결시키고 있는 연구는 아직 부족하며, 지역복지계획 수립이 법제화 된 이후부터 관련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지역주민 대상의 복지육구조사가 보편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및 지방정치 과정에 지역주민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동참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욱 요구될 것이다. 이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의 주체이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시민으로서 어느 정도의 시민의식을 형성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고, 시민의

식의 향상을 도모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된다면 시민의식 향상과 지역복지 발전의 선순환이라는 관계가 공고히 되고, 실질적으로 지역문제 해결과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휘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시민의식

시민의식이란 성숙한 시민이 지닐 수 있는 시민 공동체 의식으로서, 성숙한 시민은 사회에 무관심하지 않고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며 사회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다.

월 키피카와 웨인 노만(1995)[22]은 시민의식을 ‘법적 지위로서의 시민의식’과 ‘바람직한 시민의 활동으로서의 시민의식’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법적지위로서의 시민의식’은 민주주의적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한 시민의 지위 다시 말해, 국적 또는 특정 국가에 대한 소속, 시민이 갖는 권리와 의무, 사회적 약자인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시민의 활동으로서의 시민의식’은 시민의 민주적 역량 또는 시민의 공적활동 능력과 책임감 즉, 시민의식과 시민으로서의 덕성,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의미한다.

시민의식 개념구성에 관한 해외 연구로는 코건(2000)[19]이 시민의식의 요소를 국가적 정체성, 권리와 자격에 대한 의식, 책임과 의무감, 참여의식, 사회적 가치 수용 등의 요인으로 파악한 바가 있고,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에서는 28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방식으로 민주주의 및 시민자질, 국가정체성 및 국제적 관계, 사회통합 및 다양성 등 세 개의 공통 핵심영역을 개념화한 뒤, 각 영역에 대해 지식, 기술, 개념, 태도, 행동차원의 문항들을 작성하여 시민의식을 측정하였다[27]. 국내에서는 공보처가 “2002년 시민의식 국제

비교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시민의식을 공동체의식, 준법의식, 참여의식, 평등의식, 권리의식, 대화/타협의식, 소비의식, 직업의식, 부에 대한 의식, 인류애 의식, 약자에 대한 보호의식, 환경의식 등 12가지 분야로 나누고, 각 측면을 사회현황 및 규범, 개인의 태도 및 가치관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척도를 구성, 연구하였다. 김태준 등(2003)[4]은 토니-퍼타 등(2001)[27]이 개발한 IEA시민의식 국제비교 연구의 문항들을 그대로 활용하여 시민의식 범주를 국가정체성(국가의식, 국제관계 및 역사의식), 신뢰 및 가치공유(신뢰, 기회균등, 민주적 가치 및 다양성), 권리 및 책임의식(준법 및 규범 준수, 도덕성 및 양심), 참여의식의 영역(보수적·사회변혁적 참여, 지역사회참여) 등 네 개 개념으로 도출하였다[4]. 지은림과 선험식(2007)[16]은 세계시민의식을 구성하는 개념으로서 시민의식을 준법의식, 사회정의의식, 책임의식, 참여의식, 봉사의식, 평등의식의 개념으로 도식화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민의식은 개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 뿐 아니라 시민이라는 특정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의 지위에서 요구되는 포괄적 자질로 보고, 김리카와 노만(1995)[22]이 제시한 시민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그에 따라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공동체적 자질 및 바람직한 시민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보처에서 제시한 12가지 분야에서 각자가 자신의 권리를 분명히 인식하고 공동사회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 개인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수록 시민의식이 높은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가치·태도와 시민의식

태도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관한 비교적 지속적인 신념의 조직으로서 인간의 행동이나 반응의 준비상태이며, 가치는 태도보다 근본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태도의 바탕이 되는 심리적 특성이다[12].

가치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들은 가치나 태도를 어떤 의식의 상태를 넘어 특정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로케쉬(1970)[24]는 시민행동에 가담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가치를 구분

했 뿐만 아니라, 시민행동에 가담한 사람들에게는 시민권 문제와 사회정의에 더 공감하는 우선적 사회적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치를 정당, 정치 지도자, 사회정책을 옹호하는 예측 변수로 사용하여, 가치는 사회행동에 참여하게 하는 주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12]. 브래스웨이트(1994)[18]도 개인의 가치 지향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그들의 태도나 의식은 물론 사회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변화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따라 사회복지 목표 설정이 달라지기도 하며[21], 사회행동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과 가치가 상이한 전략을 선택하게 하여 사회복지 목표 설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23].

따라서 상위의 연구들을 토대로 볼 때, 가치와 태도는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의 설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설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태도를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대하여 행동이나 반응하기 위한 자세로 정의하며, 가치는 말이나 태도보다 근본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가 되는 상황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으로 정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3. 지역사회문제인식과 시민의식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의식주 해결과 빈부격차 문제, 경쟁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피해질 수 없는 교육 과취업문제,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어 감에 따라 발생하는 심리 문제,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 다문화 및 한부모 가족과 같이 다양한 가족 형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안고 시민들은 살아간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모양과 정도는 달라도 각자의 사회상에 비추어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며, 시간이 흐르더라도 다른 형태의 문제로 남아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대사회를 사는 국가들은 이들 문제를 사회 이슈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시민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시민들이 뭉치고 성숙한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고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정무성 등(2003)[14]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

득 등에 대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을수록 복지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물론 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문제 해결의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2004)[17]은 민주항쟁 및 사회문제 인식과 대통령 직선제 등의 시민권 제도 변화로 인해 한국인은 사회권에 대한 의식이 높고,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윤미경(2007)[7]의 연구에서도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을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간의 존엄성, 준법정신, 합리적 의사결정, 사회참여 등의 시민의식 영역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상위의 연구들을 토대로 볼 때, 지역사회문제인식 정도는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의 설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설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제인식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전개되고 있는 인간관계에 의한, 또는 사회의 제도나 구조에 의한 제반 문제에 대한 인식의 심각성 정도로 보고 연구하고자 한다.

4. 사회참여와 시민의식

시민사회 건설은 자발적인 시민의 사회참여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시민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시민사회의 기초가 된다. 일반적 의미의 사회참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이나 활동의 일부분을 맡거나 일에 영향을 행사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승중(1993)[8]은 사회참여를 일반적 의미보다는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행위자의 신념과 실천이 중시되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콘웨이(1991)[20]는 목적의식이 있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정치참여라고 하였다.

김광명(1997)[3]은 지역사회에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각 시민은 주민 참여가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할 권리이며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시민사회는 자원봉사자의 참여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없는 시민사회는 의미가 없으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의 토대위에 형성된 시민사회는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기여하고 있다. 즉, 정치사회적 기여로는 정부예산의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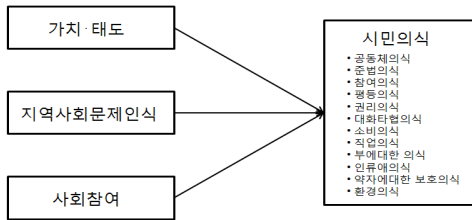
충, 정부지출의 감소, 관료제와 중앙집중화 문제 해소를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 해결을 들 수 있으며, 안정된 민주주의의 기본요소가 되는 자율성, 자치, 참여 및 권력 분산에 도움을 준다. 사회복지부문의 기여로는 불완전한 복지국가를 보충하고 지원하는 역할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사람들이 자발성과 독립심을 키우며, 서로 간 유대와 네트워킹을 강화해 심각한 사회문제 해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6][15][25]. 원미순과 박혜숙(2010)[6]의 연구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 가운데 자원봉사개념에 대한 인식,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이타적 동기, 기관의 자원봉사 업무배치가 시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민정(2010)[2]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의 참여경험과 지속의지가 높을수록 민주적 기본질서 이해와 절차의 준수, 인간존엄성, 사회참여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상위의 연구들을 토대로 볼 때, 사회참여 여부는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의 설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설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참여를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이나 활동의 일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맡거나 계획에 참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동으로 보고, 이를 구체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규정하고자 한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정부의 역할과는 직접적 관계없이 시민들의 사회적 책임감과 의무감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행위로 정의하며, 각종 동호회와 동창회를 포함한 사교활동, 종교 활동, 환경단체운동 등 시민운동, 합창단 등 문화활동 등에 참여하는 경우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연구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론적 논의에 따라, 가치·태도, 지역사회문제인식 및 사회참여와 시민의식 간의 관계를 연구모형과 가설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통제변수 : 성, 연령, 교육, 소득수준

그림 1. 연구모형

- 가설 1. 가치·태도는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지역사회문제인식 정도는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사회참여 여부는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한반도 및 경기도의 정중앙에 위치하면서 매년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용인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0. 7월말 현재 용인시의 인구는 약 87만 명으로,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고루 반영한 도농 복합지역으로서 한국의 지역시민의식을 살펴보는데 평균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설문대상은 20세 이상의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거주 남녀 619,925명으로, 인구 및 연령 분포에 따라 비례확률 층화표집을 실시하였다. 층화속성으로 각 구의 인구 및 연령 비율을 반영하였다. 조사는 통·반장의 협조를 통해 2010년 12월 약 3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표본크기는 신뢰수준을 95%로 하여 여론조사시(유한)모집단 표본 추출 공식에 의거, 각 구별로 98명씩 최소 294명의 표본인구가 필요하였으나 회수율을 고려하여 600부를 조사하였고, 회수율은 92.3%로 총 554부가 회수되어 모두 최종 분석되었다.

3. 측정도구

3.1 시민의식

본 연구는 공보처(1998)가 연세대사회발전연구소의 시민의식 조사(1996) 12개 하위척도를 사용하여 실시한 '2002 시민의식 국제비교 조사'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①공동체의식 ②준법의식 ③참여의식 ④탈권위 의식(평등의식) ⑤권리의식 ⑥대화/타협의식 ⑦소비의식 ⑧직업의식 ⑨부에 대한 인식 ⑩인류애 의식 ⑪약자에 대한 보호 의식 ⑫환경의식 등 12개 하위개념에 각 8문항씩 구성되었으며, 해당문항에 동의할수록 높은 값을 갖게 되는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베리맥스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시 커뮤넬리티가 .4 미만으로 요인모델에서 개별 변인이 차지하는 상대적 기여도 즉, 공통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비율이 기준 이하로 나타난 문항을 제거하고 총 52문항을 최종분석 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문항들의 커뮤넬리티는 0.519~0.724 사이의 공통성을 나타냈으며, 4개 요인으로 분류된 누적분산은 총분산의 60.721%를 설명하였다.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측도는 .843, 바트레트(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은 $p = .00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지역사회문제인식을 측정하는 척도의 개념이 타당하게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부록 1]. 본 연구에서 공동체의식의 신뢰도는 .826, 준법의식 .808, 참여의식 .818, 평등의식 .802, 권리의식 .819, 대화타협의식 .798, 소비의식의 .799, 직업의식 .797, 부에 대한 인식 .800, 인류애의식 .809, 약자보호의식 .796, 환경의식에 대한 신뢰도는 .799로 높게 나타났다.

3.2 가치·태도

개인의 가치·태도 측정을 위해서는 배성의(1996)가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배성의는 '한국 성인의 사회 교육 참여정도와 그 관련변인 분석'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개인의 가치·태도 변인의 타당도를 검증하여 척도를 구성한 바 있다. 본 척도는 총 12개 문항, 4개 하위요소로 구성되었으며(사회적 성취욕구, 자아인식, 사교성, 문화적 가치지향성), 해당문항에 동의할수록 높은 값을 갖게 되는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요인분석시, 커뮤넬리티 .4 미만의 변량비율을 나타내는 1번 문항을 제거하고 총 11문항을 최종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문항들이 0.430~0.742 사이의 공통성을 나타냈으며, 4개 요인으로 분류된 누적분산은 총

분산의 60.190%를 설명하였다.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측도는 .678, 바르레트(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은 $p=.00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개인의 가치·태도를 측정하는 척도의 개념이 타당하게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부록 2]. 본 연구에서 사회적성취욕구의 신뢰도는 .719, 자아인식 .804, 사교성 .672, 문화적가치지향 .740으로 나타났다.

3.3 지역사회문제인식

지역사회문제인식 측정을 위해서는 정무성·유수현·전선영(2003)이 지역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지역사회문제 측정을 위해 개발한 지역사회문제인식 설문 15문항을 요인분석 하여 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한 뒤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14, 15번 문항의 커뮤넨리티가 .4 미만으로 나타나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과 모든 항목들의 커뮤넨리티는 0.501~0.806 사이의 공통성을 나타냈으며, 4개 요인으로 분류된 누적분산은 총분산의 66.472%를 설명하였다.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측도는 .778, 바르레트(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은 $p=.00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지역사회문제인식을 측정하는 척도의 개념이 타당하게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부록 3]. 1요인에는 문항 11, 10, 12, 13번이 적재되어 이 요인의 이름을 시설인프라문제로 명하였다. 2요인에는 문항 8, 9, 7, 6번이 적재되어 이 요인의 이름을 경제 및 환경문제로 명하였다. 3요인에는 문항 1, 2, 3번이 적재되어 이 요인의 이름을 자녀문제로 명하였다. 4요인에는 문항 5, 4번이 적재되어 이 요인의 이름을 노인문제로 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1요인(시설인프라문제)의 신뢰도는 .792, 2요인(경제·환경문제)의 신뢰도는 .722, 3요인(자녀문제)의 신뢰도는 .743, 4요인(노인문제)의 신뢰도는 .804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과 오류 검토 작업을 거친 후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크론바하의 내적신뢰도 계수 산출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그리고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검증으로 상관관계 분석과 톨러런스(Tolerance) 및 분산확대지수(VIF)를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초통계 결과

1.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남자 46.4%(257명), 여자 53.6%(297명)로, 이들의 연령분포는 20대 22.4%(124명), 30대 31.6%(175명), 40대 19.3%(107명), 50대 14.4%(80명), 60대 이상 12.3%(68명)로, 학력은 대졸 47.1%(261명), 고졸 27.6%(153명), 대학재학 12.7%(7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26.0%(144명), 200~300만원 미만이 22.4%(12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수입은 약 10% 안팎에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이들은 자신의 경제 상태 인식 정도가 중하층 53.6%(297명), 중상층 33.9%(188명)로 나타나, ‘중하 이하’라고 낮게 인식한 경우가 전체 62.5%(346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응답자	백분율	구분	응답자	백분율	
성별		남자	257	46.4	종교	종교이하	44	7.9
		여자	297	53.6		고졸	153	27.6
		계	554	100.0		대학재학	70	12.7
연령		20대	124	22.4	주관적 경제수준	대졸	261	47.1
		30대	175	31.6		대학원졸 이상	26	4.7
		40대	107	19.3		계	554	100.0
		50대	80	14.4		상층	20	3.6
		60대 이상	68	12.3		중상층	188	33.9
		계	554	100.0		중하층	297	53.6
		100만원미만	79	14.3		하층	49	8.9
100~200만원미만	144	26.0	계	554	100.0			
소득		200~300만원미만	124	22.4	사회활동 참여(복수 응답, n=54)	없다	253	45.6
		300~400만원미만	90	16.2		종교활동	115	20.6
		400~500만원미만	54	9.7		시민운동	24	4.3
		500만원이상	63	11.4		사교활동	102	18.4
		계	845	100.0		봉사활동	52	9.4
						문화활동	30	5.4
			기타	10	1.8			

1.2 측정변인의 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기초통계 분석으로 주요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그리고 내적일관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변인의 특성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개인의 가치·태도의 평균은 7점 척도 기준으로 4.26이었으며, 하위영역 가운데 문화적가치지향이가 4.402, 사교성 4.38, 사회적성취욕구 4.368, 자아인식 3.87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문제인식의 평균은 5점 척도 기준으로 3.40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은 시설인프라문제인식이 3.483, 노인문제인식 3.40, 경제·환경문제인식 3.395, 시설인프라문제인식 3.483, 자녀문제 3.25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민의식의 평균은 7점척도 기준으로 3.51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가운데 부에 대한 의식 2.345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는 대화타협의식 2.531, 준법의식 2.588 등의 순으로 낮았다. 반면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낸 하위영역은 직업의식 4.422, 환경의식 4.407, 약자보호의식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672~.826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또한 왜도가 2보다 크거나 첨도가 7보다 큰 경우가 아니면 추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에 비해,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의 왜도, 첨도는 모두 추정에 문제가 없는 양호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 확인을 통해 연구에 사용한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가치·태도와 지역사회문제인식 간의 상관관계는 최저 .089에서 최대 .420($p < .05$) 사이의 양(+)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3 이상의 보통 이상의 상관을 나타낸 경우는 사교성과 사회적성취욕구 간 .321, 문화적 가치지향과 사회적성취욕구 간 .365, 경제·환경문제인식과 시설인프라문제인식 간 .385, 노인문제인식과 시설인프라문제인식 간 .407, 노인문제와 경제·환경문제인식 간 .377, 자녀문제와 경제·환경문제인식 간 .420으로 나타났으나, .5 이상의 높은 상관에는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회귀분석시 독립변수들의 분산확대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1.076~1.365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발생의 소지는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측정변인의 특성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내적 일관성
가치·태도	사회적성취욕구	4.368	.691	.447	1.158	.719
	자아인식	3.872	.658	.327	1.010	.804
	사교성	4.381	.723	.302	1.678	.672
	문화적가치지향	4.402	.689	.223	1.249	.740
지역 사회 문제 인식	시설인프라문제	3.483	.632	.182	.122	.792
	경제·환경문제	3.395	.556	.092	.760	.722
	자녀문제	3.255	.619	-.004	1.198	.743
	노인문제	3.408	.656	.201	.003	.804
시민 의식	공동체의식	3.976	.578	-.440	2.411	.826
	준법의식	2.588	.604	.036	2.182	.806
	참여의식	4.002	.529	-.168	1.898	.818
	평등의식	2.602	.533	-.645	1.342	.802
	권리의식	4.022	.428	.107	2.458	.819
	대화타협의식	2.531	.574	-.517	1.123	.798
	소비의식	2.656	.469	-.469	.911	.799
	직업의식	4.422	.519	.417	1.171	.797
	부에대한인식	2.345	.693	-.731	.656	.800
	인류애의식	4.149	.432	.631	1.855	.809
	약자보호의식	4.383	.499	.199	1.071	.796
환경의식	4.407	.535	.986	2.071	.799	

표 3. 변수 간 상관관계

구분	가치·태도				지역사회문제인식			
	사회적 성취 욕구	자아인 식	사교 성	문화 적 가치 지향	시설 인프 라문 제	경제· 환 경문 제	자녀 문제	노인 문제
가치·태도	사회적 성취욕구	1						
	자아인식	.007	1					
	사교성	.321 (***)	.028	1				
	문화적 가치지향	.365 (***)	.135 (**)	.154 (***)	1			
지역 사회 문제 인식	시설인프라문제	.037	-.053	.002	.100 (*)	1		
	경제·환경문제	.112 (**)	.035	.127 (**)	.089 (*)	.385 (***)	1	
	자녀문제	.013	.034	.084 (*)	.077	.218 (***)	.420 (***)	1
	노인문제	.065	-.072	.000	.042	.407 (***)	.377 (***)	.297 (***)

* $p < .05$, ** $p < .01$, *** $p < .001$, $n=554$

2. 가설검증 결과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고 변수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 크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동체의식, 준법의식, 참여의식, 평등의식, 권리의식, 대화타협의식, 소비의식, 직업의식, 부에대한 의식, 인류애의식, 약자에 대한 보호의식, 환경의식 등 시민의식의 12개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 연령, 교육수준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치·태도의 정도, 지역사회문제인식의 정도, 사회활동참여 여부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 ‘공동체의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가치·태도의 정도, 지역사회문제인식의 정도, 사회활동참여여부를 설명변수로 투입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F=7.939, p=.000$),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8.6%

(수정된 $R^2=.163$)로 나타났다. 공동체의식은 사회적성취욕구, 자아인식, 시설인프라문제인식, 사회활동참여 등의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면, 사회적성취욕구 ($\beta=.280$), 자아인식 ($\beta=.160$), 시설인프라문제인식 ($\beta=.121$), 사회활동참여 ($\beta=.086$) 등이 순차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준법의식’을 종속변수로 연구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투입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F=5.845, p=.000$),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4.4%(수정된 $R^2=.120$)였다. 준법의식은 사회적성취욕구, 사교성, 시설인프라문제인식, 경제·환경문제인식, 사회활동참여

표 4.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명	1. 공동체 의식		2. 준법 의식		3. 참여 의식		4. 평등 의식		5. 권리 의식		6. 대화타협 의식		7. 소비 의식		8. 직업 의식		9. 부에 대한 인식		10. 인류애 의식		11. 약자보호 의식		12. 환경 의식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Constant)		6.202***		11.899***		5.460***		11.297***		9.811***		11.415***		13.193***		8.253***		10.567***		9.113***		6.152***		4.506***	
통제변수	성별	.011	.797	-.021	-.493	.055	1.344	.010	.235	.085	1.960**	-.045	-1.030	-.018	-.397	-.001	-.016	-.032	-.757	.116	2.597*	-.034	-.791	.047	1.098
	연령	.114	2.459*	.071	1.502	.105	2.375*	.002	.046	.003	.071	.007	.137	.007	.147	-.042	-.910	.087	1.891	-.081	-1.663	-.017	-.374	.055	1.168
	교육수준	-.042	-.907	.013	.266	.016	.353	.009	.184	-.003	-.059	-.020	-.423	.007	.148	-.016	-.347	-.003	-.054	-.032	-.653	.114	2.426*	.086	1.811
가치·태도	사회적성취욕구	.280	6.013***	-.131	-2.751**	.226	5.050***	-.175	-3.637***	.227	4.799***	-.120	-2.501*	-.165	-3.379**	.297	6.401***	-.107	-2.299*	.101	2.059*	.138	2.951**	.101	2.131*
	자아인식	.160	3.771***	-.028	-.640	.204	4.985***	-.037	-.849	.238	5.518***	.059	1.339	.003	.076	-.067	-1.578	.111	2.611**	.088	1.967*	-.035	-.808	.053	1.224
	사교성	.070	1.578	.140	3.103**	.093	2.189*	.076	1.670	.015	.339	.108	2.378*	.038	.816	-.050	-1.130	.138	3.143**	-.065	-1.392	-.096	-2.162*	-.069	-1.548
	문화적가치지향	.038	.840	.000	-.006	.166	3.777***	-.131	-2.767**	.094	2.014*	-.135	-2.849**	-.105	-2.190*	.128	2.798**	-.188	-4.136***	.117	2.423*	.140	3.035**	.133	2.861**
독립변수 지역 사회문제인식	시설인프라문제	.121	2.458*	-.108	-2.170*	.000	.005	.032	.633	.014	.279	.054	1.067	.016	.314	.079	1.636	.032	.664	-.003	-.062	.061	1.253	-.054	-1.094
	경제·환경문제	-.047	-.906	.129	2.453*	-.072	-1.451	.137	2.563*	-.019	-.357	.107	2.012*	.125	2.317*	-.102	-1.996*	.129	2.515*	.065	1.196	-.089	-1.724	-.122	-2.324*
	자녀문제	-.039	-.806	.068	1.384	.060	1.296	-.009	-.179	.051	1.036	.052	1.046	-.016	-.314	.096	2.006*	.005	.106	-.035	-.699	.085	1.764	-.079	-1.609
	노인문제	-.075	-1.553	.049	.989	.098	2.115*	.011	.220	.067	1.366	.067	1.339	.086	1.703	-.107	-2.218*	.130	2.706**	-.134	-2.636**	-.139	-2.873**	-.056	-1.135
사회활동참여	.086	2.020*	.098	2.262*	.145	3.548***	-.083	-1.882	.032	.746	.015	.351	-.021	-.469	.043	1.027	-.064	-1.519	.011	.242	.130	3.057**	.079	1.839	
R^2	.186		.144		.248		.125		.161		.131		.107		.190		.193		.093		.178		.159		
수정된 R^2	.163		.120		.227		.100		.137		.106		.082		.167		.169		.067		.154		.135		
F	7.939***		5.845***		11.449***		4.951***		6.641***		5.238***		.169***		8.145***		.261***		3.556***		7.488***		6.540***		

* $p < .05$, ** $p < .01$, *** $p < .001$, $n = 554$

등의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유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는 사교성($\beta = .140$), 사회적성취욕구($\beta = -.131$), 경제·환경문제인식($\beta = .129$), 시설인프라문제인식($\beta = .108$), 사회활동참여($\beta = .09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때 사교성, 시설인프라문제인식, 경제·환경문제인식과 사회활동참여는 준범의식과는 정적(+) 관계가, 사회적성취욕구는 준범의식과는 부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참여의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연구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투입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F = 11.449$, $p = .000$),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4.8%(수정된 $R^2 = .227$)로 나타났다. 참여의식은 사회적성취욕구, 자아인식, 사교성, 문화적가치지향, 노인문제인식, 사회활동참여 등의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는 사회적성취욕구($\beta = .226$), 자아인식($\beta = .204$), 사회활동참여($\beta = .145$), 노인문제인식($\beta = .098$), 사교성($\beta = .0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평등의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연구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투입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F = 4.951$, $p = .000$),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2.5%(수정된 $R^2 = .100$)로 나타났다. 평등의식은 사회적성취욕구, 문화적가치지향, 경제·환경문제인식 등의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는 사회적성취욕구($\beta = -.175$), 경제·환경문제인식($\beta = .137$), 문화적가치지향($\beta = -.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때 경제·환경문제인식은 평등의식과 정적(+) 관계가 있으며, 사회적성취욕구, 문화적가치지향은 평등의식과는 부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권리의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연구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투입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F = 6.641$, $p = .000$),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6.1%(수정된 $R^2 = .137$)로 나타났다. 권리의식은 사회적성취

욕구, 자아인식, 문화적가치지향 등의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권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는 자아인식($\beta = .238$), 사회적성취욕구($\beta = .227$), 문화적가치지향($\beta = .09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대화타협의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연구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투입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F = 5.238$, $p = .000$),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3.1%(수정된 $R^2 = .106$)로 나타났다. 대화타협의식은 사회적성취욕구, 사교성, 문화적가치지향, 경제·환경문제인식 등의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대화타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는 문화적가치지향($\beta = -.135$), 사회적성취욕구($\beta = -.120$), 사교성($\beta = .108$), 경제·환경문제인식($\beta =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때, 사교성, 경제·환경문제인식은 대화타협의식과 정적(+) 관계가 있으며, 문화적가치지향, 사회적성취욕구는 대화타협의식과는 부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소비의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연구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투입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F = 4.169$, $p = .000$),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0.7%(수정된 $R^2 = .082$)로 나타났다. 소비의식은 사회적성취욕구, 문화적가치지향, 경제·환경문제인식 등의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 소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는 사회적성취욕구($\beta = -.165$), 경제·환경문제인식($\beta = .125$), 문화적가치지향($\beta =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때, 경제·환경문제인식은 소비의식과 정적(+) 관계가 있으며, 사회적성취욕구, 문화적가치지향은 소비의식과 부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덟째, '직업의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연구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투입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F = 8.145$, $p = .000$),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9.0%(수정된 $R^2 = .167$)로 나타났다. 직업의식은 사회적성취

육구, 문화적가치지향, 경제·환경문제인식, 자녀문제인식, 노인문제인식 등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들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사회적성취육구($\beta = .297$), 문화적가치지향($\beta = .128$), 노인문제인식($\beta = -.107$), 경제·환경문제인식($\beta = -.102$), 자녀문제인식($\beta = .0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때, 사회적성취육구, 문화적가치지향, 자녀문제인식은 직업의식과 정적(+)
관계가 있으며, 경제·환경문제인식, 노인문제인식은 직업의식과 부정(-)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홉째, '부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연구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투입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F = 8.261, p = .000$),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9.3%(수정된 $R^2 = .169$)로 나타났다. 부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성취육구, 자아인식, 사교성, 문화적가치지향, 경제·환경문제인식, 노인문제인식 등의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는 문화적가치지향($\beta = -.188$), 사교성($\beta = .138$), 노인문제인식($\beta = .130$), 경제·환경문제인식($\beta = .129$), 자아인식($\beta = .111$), 사회적성취육구($\beta =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때, 자아인식, 사교성, 경제·환경문제인식, 노인문제인식은 부에 대한 인식과 정적(+)
관계가 있으며, 사회적성취육구, 문화적가치지향은 부에 대한 인식과 부정(-)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열째, '인류애의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연구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투입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F = 3.556, p = .000$),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9.3%(수정된 $R^2 = .067$)로 나타났다. 인류애의식은 사회적성취육구, 자아인식, 문화적가치지향, 노인문제인식 등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들 변수의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면 노인문제인식($\beta = -.134$), 문화적가치지향($\beta = .117$), 사회적성취육구($\beta = .101$), 자아인식($\beta = .0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때, 사회적성취육구, 자아인식, 문화적가치지

향은 인류애의식과 정적(+)
관계가 있으며, 노인문제인식은 인류애의식과 부정(-)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열한째, '약자보호의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연구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투입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F = 7.488, p = .000$),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7.8%(수정된 $R^2 = .154$)로 나타났다. 약자에 대한 보호의식은 사회적성취육구, 사교성, 문화적가치지향, 노인문제인식, 사회활동참여 등의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약자에 대한 보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는 문화적가치지향($\beta = .140$), 노인문제인식($\beta = -.139$), 사회적성취육구($\beta = .138$), 사회활동참여($\beta = .130$), 사교성($\beta = -.0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때 사회적성취육구, 사회활동참여는 약자보호의식과 정적(+)
관계가 있으며, 사교성, 노인문제인식은 약자보호의식과 부정(-)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열두째, '환경의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연구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투입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F = 6.540, p = .000$),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5.9%(수정된 $R^2 = .135$)로 나타났다. 환경의식은 사회적성취육구, 문화적가치지향, 경제·환경문제인식 등의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환경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면, 문화적가치지향($\beta = .133$), 경제·환경문제인식($\beta = -.122$), 사회적성취육구($\beta = .101$)의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사회적성취육구, 문화적가치지향은 환경의식과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환경문제인식은 환경의식과 부정(-)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 독립변수인 가치·태도의 하위 가운데 첫째, 사회적성취육구는 공동체의식, 준법의식, 참여의식, 평등의식, 권리의식, 대화타협의식, 소비의식, 직업의식, 부에대한 의식, 인류애의식, 약자에 대한 보호의식, 환경의식 등 12개 시민의식 하위영역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인식은 공동체의식, 참여의식, 권리의식, 부에대한 인식, 인류애의식 등 5개 시민의식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교성은 준법의식, 참여의식, 대화타협의식, 부에대한 인식, 약자보호의식 등 5개 시민의식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문화적 가치지향은 참여의식, 평등의식, 권리의식, 대화타협의식, 소비의식, 직업의식, 부에대한 인식, 인류애의식, 약자보호의식, 환경의식 등 10개 시민의식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사회문제인식 가운데에는 첫째, 시설 인프라문제에 대한 인식은 공동체의식과 준법의식 등 2개 시민의식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환경문제인식은 준법의식, 평등의식, 대화타협의식, 소비의식, 직업의식, 부에대한 인식, 환경의식 등 7개 시민의식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녀문제인식은 직업의식 한 영역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문제 인식은 참여의식, 직업의식, 부에대한 인식, 인류애 의식, 약자보호의식 등 4개 시민의식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활동참여는 공동체의식, 준법의식, 참여의식, 약자보호의식 등 4개 시민의식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맺음말

지금까지 가치·태도, 지역사회문제인식, 사회활동참여가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검증하였다.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설정하였던 가설은 모두 부분적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이에 따른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가치·태도 영역에서는 문화지향의 가치, 사교성, 사회적 성취욕구, 자아인식 등에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지역사회문제 인식에서는 시설인프라, 노인문제, 경제·환경문제, 자녀문제 등이 높게 나타났다. 시민의식의 평균은 7점 만점에 3.51로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직업의식, 환경의식, 약자보호의

식, 인류애의식, 권리의식, 참여의식, 공동체의식 등은 평균보다 높은 시민의식이 형성되어 있었다.

둘째, 가설검증 결과, ①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성취욕구, 사교성, 시설 인프라 문제인식을 높이는 것이, ②준법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사교성, 시설 인프라 문제인식, 경제·환경문제인식을 높이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③참여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성취욕구, 자아인식, 사교성, 문화적 가치지향, 노인문제 인식을 높이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④평등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환경문제 인식을 높이는 것이, ⑤권리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자아인식, 사회적 성취욕구, 문화적 가치지향을 높이는 것이, ⑥대화타협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사교성, 경제·환경문제 인식을 높이는 것이, ⑦소비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환경문제 인식을 높이는 것이, ⑧직업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성취욕구, 문화적 가치지향, 자녀문제 인식을 높이는 것이, ⑨부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서는 자아인식, 사교성, 경제·환경문제 인식, 노인문제 인식을 높이는 것이, ⑩인류애 인식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성취욕구, 자아인식, 문화적 가치지향을 높이는 것이, ⑪약자보호 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성취욕구를 높이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⑫환경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성취욕구, 문화적 가치지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개인의 사회단체 참여 독려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유효함을 증명해주는 결과이다. 가치와 태도는 공동체의식, 준법의식, 참여의식, 권리의식, 대화타협의식, 직업의식, 부에 대한 인식, 인류애 인식, 환경의식 등 시민의식 9개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행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보다 우선하는 사회적 가치 발견을 한 로케시(1970)의 연구나, 가치 지향을 통해 사회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 브래스웨이트(1994)의 연구, 가치나 태도에 따라 목표설정이 달라진다고 한 엡스테인(1968)의 연구, 가치와 태도에 따라 상이한 전략 선택을 한다고 한 리저(1986)의 연구, 이타적 동기가 시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원미순과 박혜숙(2010)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지역사회문제인식 역시 공동체의식, 준법의식, 참여의식, 평등의식, 대화타협의식, 소비의식, 직업의식, 부에 대한 인식 등 시민의식 8개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을수록 시민의식에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는 윤미경(2007)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참여는 준법의식, 참여의식, 약자보호의식 등 시민의식 3개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이거나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과 활동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시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원미순과 박혜숙(2010)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시민의식은 경제적 능력이나 학문적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식과 따뜻한 가슴으로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동참할 때 높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사회활동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및 홍보,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시민교육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회를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산재된 현대사회일수록 ‘공동체’와 ‘나눔’의 가치가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의식 영역을 망라하여 시민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이론에 깊이를 더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겠다. 연구결과 개인의 가치와 태도, 사회문제인식, 그리고 사회활동참여가 시민의식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러한 영향 요인들을 시민교육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의식 향상 도모에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속 접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가치나 태도, 지역사회문제인식, 사회활동참여 여부를 넘어 시민교육이 시민의식에

어떠한 효과와 영향력을 나타내는지 그 성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나아가 국가 역량 제고 및 발전을 위해 어떠한 시민의식이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 시민의식에 대한 분석적 접근과 시민의식 고양에 보다 많은 연구가 주력될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 [1] 공보처, *시민의식 국제비교 조사*, 1998.
- [2] 광민정,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 형성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 [3] 김광명, “서구 시민사회의 시민의식과 시민교육”, *국민윤리연구*, 제37호, pp.355-372, 1997.
- [4] 김태준, 김안나, 김남희, 이병준, 한준,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본 시민의식 측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3.
- [5] 배성의, *한국 성인의 사회교육 참여정도와 그 관련변인 분석*, 세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 [6] 원미순, 박혜숙,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7권, 제3호, pp.225-245, 2010.
- [7] 윤미경, *고등학교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연구: 수원시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8] 이승종,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서울: 삼영, 1993.
- [9] 이영경, “효과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재할용 정책 방안에 대한 연구: 경주시민의 의식조사를 통한 재할용결정인자를 중심으로”, *환경정책*, 제8권, 제1호, pp.133-155, 2000.
- [10] 이진하, 황경철, 최재구, 조기철, 여현구, “수원시민의 환경의식조사 연구”, 논문집, 제22권, 제2호, pp.431-448, 2004.
- [11] 장황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 시민의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전북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12] 전선영, “사회복지가치를 매개로 한 사회복지 교

육과 옹호 태도 및 전략의 인과관계 분석”, 한국 사회복지학, 제57권, 제4호, pp.35-65, 2005.

[13] 정다운, 김홍순, “용산공원 조성방향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의식조사”, 서울도시연구, 제10권, 제2호, pp.113-126, 2009.

[14] 정무성, 유수현, 전선영, *서초구 중장기 복지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서초구, 2003.

[15] 주성수, *자원봉사 이론, 제도, 정책*, 아르케, 2005.

[16] 지은림, 선광식,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인 탐색 및 관련변인 분석”, 시민교육연구, 제39권, 제4호, pp.115-134, 2007.

[17] 최현, “한국 시티즌십”, 민주주의와 인권, 제6권, 제1호, pp.171-349, 2006.

[18] V. A. Braithwaite, “Beyond Rokeach’s equality- freedom model: Two-dimensional values in a one-dimensional world,” *Journal of Social Issues*, Vol.50, No.4, pp.67-94, 1994.

[19] J. J. Cogan, *Citizenship for the 21st Centur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Education*. London: Kogan Page, 2000.

[20] M. Conway,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United States*, 2nd Ed. Washington D.C, 1991.

[21] I. Epstein, “Social Workers and Social Action: Attitudes toward Social Action Strategies,” *Social Work*, Vol.13, No.2, pp.101-108, 1968.

[22] W. Kymlicka, and W. Norman, Return of the Citizen: A Survey of Recent Work on Citizenship Theory. in *Theorizing Citizenship*. edited by R. Beiner.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5.

[23] L. C. Reeser, *Professionalization and Social Activism*. Ph.D., Bryn Mawr College, 1986.

[24] M. J. Rokeach, *Beliefs, Attitudes and Values*. San Francisco : Jossey-Bass Inc., 1970.

[25] K. Roy, and S. Ziemek, “On the Economics of Volunteer,” *Discussion Papers on Development Policy*, Vol.26, ZEF, 2001.

[26] T. Shuller, *Integration human/knowledge*

capital and social capital. OECD/DfES/QCA/ESRC seminar, Oxford University, 2002.

[27] J. Torney-Purta, R. Lehmann, H. Oswald, and W. Schulz, *Citizenship and education in twenty eight countries: Civic Knowledge and Engagement at Age Fourteen*. Amsterdam, Netherlands: IEA, 2001.

저 자 소 개

전 선 영(Sun-Young Jeon)

정희원



- 1993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사)
- 1995년 8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석사)
- 2004년 8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용인대학교 보건복지대학 라이프디자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지역복지,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실천

부록 1. 시민의식 요인분석 결과

분류		공통성	요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평등의식	G24.1	윗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한다	.578	.680	.032	-.145	.115	.138	.126	.101	-.059	.040	-.012	.173	-.016
	G29.2	배금주의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다	.685	.673	.163	-.118	.191	.159	.239	.069	-.140	.017	.136	-.028	.168
	G24.2	윗사람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른다	.616	.666	-.022	.032	-.051	.137	-.066	.063	.222	-.072	-.047	.186	-.222
	G29.3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기 어렵다	.561	.599	.106	-.009	.109	.097	.206	.234	-.124	-.025	-.068	-.042	.222
	G29.1	돈이 없으면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617	.555	.064	-.111	.315	.121	.263	.105	-.263	.044	.072	.095	.113
	G24.3	여자 상급자 밑에서 일하기 싫어한다	.529	.511	.030	.025	.167	.098	.022	.291	.055	.003	.037	-.070	-.363
	G28.2	사회에 대한 기여보다는 수입에 따라 직업을 평가한다	.603	.509	.430	-.090	.276	.124	.091	.028	-.160	.103	.049	-.055	.095
	G28.3	직업으로 사람의 신분을 평가한다	.593	.509	.450	-.179	.153	.113	.112	.047	-.119	.128	-.049	-.097	.079
2 대화타협의식	G26.7	가능하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680	.023	.775	.047	-.048	.038	.108	.127	.084	.063	.047	.178	.024
	G26.6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편이다	.610	.069	.727	-.021	.080	.156	.081	.141	.020	.016	.107	.078	.006
	G26.8	정치적 이해가 다르더라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 타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575	.045	.697	-.043	.108	.055	.010	.113	-.062	-.040	.052	.222	.008
3 참여의식	G26.5	어떤 경우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18	.280	.583	-.057	.230	.131	.116	.054	.047	-.021	.028	.013	.002
	G21.7	우리 동네에 공신행사가 열리면 반드시 참석하겠다	.645	.001	.072	.734	.003	-.095	.092	-.142	.197	-.021	.130	-.062	-.303
	G21.8	나는 동네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	.630	.082	-.054	.714	.063	-.036	-.089	-.085	.255	.004	.007	-.129	.093
	G23.5	우리 동네에 문제가 생기면 일장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608	-.099	-.175	.707	.007	.079	.045	.019	.039	.165	.062	.107	-.122
	G23.8	기회만 주어준다면 자원봉사활동을 하려고 한다	.556	-.092	.091	.705	-.057	.013	.012	.135	-.031	.001	.031	.067	.119
4 소수의식	G23.7	사회문제에 관해 언론에 글을 써 보내려고 노력한다	.550	-.276	-.132	.582	-.123	.016	.038	.059	.091	.190	.039	.187	-.127
	G27.3	바는 것에 비해 많이 쓴다	.665	.167	.116	-.017	.761	.142	.093	.095	-.018	-.005	-.029	-.003	.072
	G27.2	중고품을 사기를 꺼린다	.646	.146	.080	-.030	.700	.087	.088	.304	.104	-.078	-.004	.010	.077
	G27.1	물건을 아껴 쓸 줄 모른다	.607	.135	.065	-.028	.666	.039	.203	.129	-.144	.056	.047	.005	-.261
5 준법의식	G27.4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다	.535	.128	.129	-.006	.644	.195	.134	-.011	-.042	-.028	-.064	.112	.111
	G22.2	공공시설물을 함부로 사용한다	.730	.199	.204	-.060	.214	.746	.021	.006	-.041	-.008	.057	-.123	-.145
	G22.1	어려운 일이 생기면 뇌물을 써서라도 해결하려고 한다	.614	.049	-.002	.035	.050	.732	-.064	.165	.130	.115	.099	.050	.012
	G22.5	법대로 하다가 손해 보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	.597	.073	.061	-.061	.003	.667	.297	.113	.038	-.064	-.051	.060	.163
	G22.3	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다	.553	.244	.162	.024	.223	.619	.023	-.046	-.022	.089	.049	.107	-.090
	G22.6	공공시설물을 위반하는 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558	.199	.128	.018	.148	.544	.388	.086	.020	-.087	-.042	.012	.128
6 환경의식	G32.4	환경오염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614	.153	-.027	.038	.303	.186	.632	.143	-.024	-.043	.171	-.101	.017
	G32.7	나는 평소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한다	.537	.100	.238	.133	.012	-.029	.632	-.081	-.021	.161	-.083	.086	-.071
	G32.5	환경파괴 사범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	.645	.193	.098	-.122	.287	.196	.591	.208	-.014	-.010	.074	.072	.244
	G32.1	우리나라는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다	.565	.294	.069	-.052	.275	.130	.555	.084	-.234	-.057	.045	.071	.038
	G31.5	세금을 더 내더라도 사회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	.519	.043	.150	.218	-.132	.008	.382	.375	-.017	.043	.270	.174	-.195
7 약자보호의식	G31.3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기를 싫어한다	.649	.281	.131	-.067	.166	.091	-.011	.685	-.051	-.006	-.146	-.113	.078
	G31.4	장애인은 취업하기 어렵다	.671	.196	.267	-.118	.194	.051	.224	.663	-.030	.042	-.057	-.061	.089
8 공동체 의식	G31.2	공공시설에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567	.104	.135	.054	.185	.157	.059	.646	-.034	-.042	.158	.166	-.017
	G21.2	개인보다는 국가이익을 우선시한다	.724	-.135	-.109	.144	-.036	-.086	-.050	-.035	.809	.025	.048	-.022	-.053
	G21.3	국가의 장래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648	-.060	-.036	.165	-.024	.033	-.122	.027	.738	.143	.039	.149	.101
9 권리의식	G21.4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 자신의 이익은 희생되어도 좋다	.595	-.051	.044	.383	-.045	-.194	.087	-.182	.509	.073	-.008	-.060	-.297
	G25.8	공공기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항의하곤 한다	.652	-.010	.056	.036	-.041	.087	-.028	-.051	.057	.776	.162	.079	-.049
	G25.7	정부의 부당한 행정 처리에 맞서려고 노력한다	.675	.039	-.006	.120	-.093	-.032	.111	.044	.159	.767	.012	.019	-.147
10 인류애 의식	G25.6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554	.050	.025	.151	.152	.025	.000	.004	-.072	.583	-.108	.088	.374
	G30.8	외국 난민을 돕는 것은 우리나라의 불우이웃을 돕는 것과 똑같이 중요한 일이다	.632	-.031	.125	.138	.058	-.086	.069	-.076	.033	.061	.739	.027	-.158
	G30.7	내가족이 외국인과 결혼하더라도 반대하지 않겠다	.543	.016	.066	.052	-.111	.093	.030	-.042	-.051	.014	.679	.217	.021
11 직업의식	G30.6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국내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600	.065	.054	.000	.049	.146	.001	.219	.218	.057	.620	.008	.293
	G28.7	수입이 적더라도 더 보람있는 일을 하겠다	.750	.075	.192	.103	.026	-.112	.050	.013	.074	.085	.132	.807	-.007
12 부위의식	G28.6	수입이 적더라도 적성에 맞는 것이 좋은 직업이다	.676	.133	.294	-.002	.100	.030	.071	.015	.026	.013	.154	.728	.019
	G29.5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661	.453	.285	.066	.174	.052	.201	.119	-.182	-.004	.060	.141	.475
	G23.1	이 세상에 돈이만 인되는 것이 없다	.405	-.060	-.027	.364	-.015	.029	-.103	-.156	-.068	.150	-.071	.228	-.385
		고유값(eigen value)	9.276	3.929	2.399	1.800	1.686	1.643	1.476	1.415	1.388	1.225	1.162	1.120	
		분산설명비율(%)	19.737	8.444	5.104	3.830	3.587	3.436	3.140	3.010	2.911	2.606	2.473	2.384	
		누적 비율(%)	19.737	28.181	33.286	37.115	40.702	44.198	47.338	50.348	53.228	55.855	58.338	60.721	

부록 2. 가치·태도 요인분석 결과

분 류			공통성	요인			
				1	2	3	4
1 사회적 성취욕구	G1_6	인생에 있어서 사회적 출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742	.847	-.120	.082	-.057
	G1_5	남들보다 사회적으로 더 많이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다	.639	.755	.239	-.001	-.109
	G1_7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자주 생각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편이다	.587	.709	.164	-.199	.131
	G1_9	남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편이다	.400	.446	.354	-.272	.026
2 문화적 가치지향	G1_3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604	-.069	.766	.093	-.060
	G1_4	현재의 직업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598	.213	.739	-.071	-.031
	G1_2	인생에 있어 미래보다 현재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430	.139	.636	.075	.007
3 자아인식	G1_11	인간의 운명이란 숙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바꾼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728	-.103	.007	.846	-.045
	G1_10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모든 일에 자신감이 부족한 편이다	.681	-.012	.099	.793	.205
4 사교성	G1_8	직장 이외의 다른 사회단체에 가입하는 등의 활동은 하지 않는 편이다	.756	.179	.045	.054	.848
	G1_12	나의 건강에 대해서 비교적 자신이 있다	.457	.339	.152	-.100	-.556
고유값(eigen value)				2.718	1.611	1.287	1.005
분산설명비율(%)				24.706	14.647	11.704	9.132
누적 비율(%)				24.706	39.353	51.057	60.190

부록 3. 지역사회문제인식 요인분석 결과

분 류			공통성	요인			
				1	2	3	4
1 시설 인프라문제	B3_11	문화·체육시설의 부족	.585	.872	.064	.088	.100
	B3_10	각종 편의시설의 부족 및 불편	.570	.816	.059	.087	.138
	B3_12	복지시설 및 지원 부족	.645	.729	.131	.069	.324
	B3_13	주택 및 주거환경의 문제	.525	.542	.453	-.029	.019
2 경제 및 환경문제	B3_8	환경오염 문제	.572	.104	.826	.113	.058
	B3_9	범죄, 비행	.542	.142	.683	.267	-.030
	B3_7	빈부격차 문제	.603	.125	.591	.046	.416
3 자녀문제	B3_6	취업·실업 문제	.608	.038	.529	.217	.431
	B3_1	아동보육 문제	.524	.110	-.002	.848	.182
	B3_2	자녀교육 문제(학교교육, 사교육 등)	.568	.129	.188	.827	.062
4 노인문제	B3_3	청소년 유해환경	.538	-.055	.369	.683	.137
	B3_5	노인 여가 서비스 부족	.650	.244	.127	.088	.850
	B3_4	노인 케어 서비스 부족	.621	.185	.063	.206	.815
	고유값(eigen value)				4.408	1.832	1.264
분산설명비율(%)				33.906	14.091	9.725	8.749
누적 비율(%)				33.906	47.997	57.722	66.472